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4
Apr. 2014
Vol.2 No.4

- '주안에삶' 감사예배
- 주안에만남
- 고난주간 특별집회
- 칼럼 / 부활절 화보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n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고난주간 특별집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따라



지난 4월 14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고난주간 특별예배를 세리토스에서 5:30AM에 벨리에서는 7:45PM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렸다. 최혁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목하셨던 사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격하는 성전에서 이를 수단화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고, 재물의 문제가 영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으며, 향유를 부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비한 여인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으며,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다.



■ 주안에삶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한 양육훈련”



주안에교회 평신도 사역훈련원에서 지난 2, 3월간 실시한 양육훈련에 대한 감사예배 및 평가회가 지난 4월 14일(주일) 밸리채플에서 양육훈련 인도자, 교역자, 장로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감사예배 및 평가회는 이정의 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대일 전도사는 주안에 삶 훈련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평신도 사역훈련은 몇몇 성도의 사역과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날 사역훈련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사역훈련의 진행에 힘써주신 인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제한 뒤 주안에 삶 훈련결과를 소개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주안에삶’ 80명 수료 인도자 감사예배

훈련은 ‘주안에 삶’ 세리토스 3기와 밸리 1기, 교재는 풍요로운 삶 1, 2권, 일시는 2.2 ~ 3.22, 2014(오리엔테이션 포함 총 7주), 장소는 비전채플과 밸리채플, 훈련 1권 수료자는 총 80명(밸리 52명, 세리토스 28명), 훈련 2권 수료자 7명(세리토스)으로 진행되었다.

훈련에 참가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훈련의 평가 및 반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훈련 교재, 훈련 진행, 훈련 인도자,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77~94%의 범위에서 긍정적 응답이 있었다.

다음 순서로 인도자 간증이 있었으며 이정의 전도사, 이규실 집사, 공태용 집사, 안희정 집사, 김정혜 권사, 이명선 집사, 정혜옥 권사가 간

증했다. 최혁 목사는 평신도 사역훈련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간증문을 정리하고 Feedback하여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와 훈련생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찬양해야 한다. 인도자들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인도에 임해야 하며, 교회의 리더들은 인도자들의 수고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새롭게 훈련생들이 변화되어 가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향후 다양한 양육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격려했다. 주안에교회 양육훈련은 이제 시작이므로 단계별로 잘 진행되어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삶의 적용을 향상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한다.



담임목사와 함께 ‘주안에 생명’

■ 성경과 교리의 기초를 배운다

소식 하나) 주안에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초적인 성경의 교리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교리는 우리 신앙의 터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올바르게 쌓아 올릴 수 있는 터 다지기가 주안에생명에서 시작됩니다. 교리는 올바른 신앙관을 세우게 도와줄 것입니다.

소식 둘) 주안에생명은 등록교인으로서 ①주안에남반(새가족교육)을 이수하신 성도로 ②신청서 작성하신 성도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안에생명 강사는 최혁담임목사님으로 3가지의 핵심교리를 통해 성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중요한 시간이 될것입니다.

소식 셋) 강의 날짜 및 장소
Valley Chapel:
5/31/14 10:00am~5:00pm
Cerritos Chapel:
6/21/14 10:00am~5:00pm

참가비: \$20
점심 제공

문의: 양국민 전도사(310-245-6402)

■ 주안예살 인도자 소감

6주동안 성령의 도우심 놀라운 체험



믿음의 자매들과 삶을 나누며

평신도 양육훈련 '풍요로운 삶'의 인도자로 임명 받고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고, 평소 말하려 하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들을 인도한 경험도 없는 내가 어떻게 인도자가 되고 진행한단 말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첫 만남부터 몇 분 집사님들의 삶을 나눔으로 서로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훈련 멤버들은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삶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니까, 이제 교회에 가면 아는 얼굴이 있어서 인사도 하고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훈련 멤버들이 믿음 안에서의 삶을 나눌 때 나에게 도전도 되었습니다.

만남시간에 한 분은 교재가 너무 기초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삶의 훈련이 너무 은혜롭다고, 다른 분은 알고 있었지만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또 기초이지만 다져지는 너무 좋은 공부라고 서로서로 share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구역예배에 가서 풍요로운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렇지 않고 은혜로운 시간이나 꼭 참석하라고 오히려 풍습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인 각자의 느낌을 들으면서 내 '기도응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멤버들에게 간증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은혜롭고 active했던 다섯번째 만남, 6과를 준비하며 기쁨이 넘쳤던 시간, 마지막 과목인 '성령충만'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매달렸던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과목인 '성령충만'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과 만남이 준비된 교안대로 진행은 되었지만 좀 어수선한 감이 들었습니다. 두 세분이 집중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안 도와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령님께서 꼭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인 내가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훈련생일 때는 숙제하기 바빴는데, 인도자의 마음은 책임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잘 마치도록 도와주시고 사용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선 집사

나도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어

미국 온지 12년 만에 정말 갑자기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날 오후에 감사에 배립니다. 더군다나 감사예배 때 모두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아! 산 넘어 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부, 대모같은 장로님 자체분의 결혼식에 전에는 참석을 못한지라 이번엔 꼭 참석을 해야 하는데... 안절부절 마음이 급하기만 합니다.

주안예살 인도자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1권을 끝내며, 늘 제 머리 속에 맴도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인도자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1권을 진행하는 동안 서로의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금방 하나가 되었고 서로의 부족함을 내 것으로 여기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첫 시간, 첫 숙제를 확인 할 때가 기억납니다. 거룩한 독서 숙제를 확인하며 한두 분 발표를 해보자고 했을 때 한 집사님이 저를 쳐다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선생님이 먼저 발표해 보시죠' 삶 공부 인도자를 맡으며 나와 한 약속이 '나도 숙제를 똑같이 하자'였습니다. 아무말 없이 내가 프린트해 간 거룩한 독서를 담담한 맘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심 속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와는 다른 집사님의 솔직함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자 모든 분들이 더욱 저를 감싸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는 울고 웃으며 6주를 함께 보냈고 우리의 카톡방의 수다는 그칠줄 모르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가든 아니면 우리가 이정표가 되어 그 자리에 서있든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크신 주님의 은혜로 저는 이정표를 보고 가던 자리에서 이제는 이정표로 쓰임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정표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않든 자리에서 이탈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 역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이 이정표를 바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고자 합니다. 제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안희성 집사

■ 주안에만남

말씀으로 은혜받고 꿈과 비전을 함께!



“복음방송 라디오를 듣는 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끌려 귀를 기울여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찜질방에 갔다가 거기 있는 CD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 들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후 친자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CD를 나누어주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찾던 중, 새벽기도에 나와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달마다 있는 새가족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기대와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계기로 주안에교회로 오게 되었나? 일반적으로 친지의 권유나 전도를 통해 교회를 오게 되지만 우리교회의 경우는

거의가 말씀에 감동되어서 나오는 분들을 또 한번 확인했다.

지난 4월26일 주일 오후 1시30분 벨리채플 1호실에서 있는 주안에만남은 교역자들과 시무장로, 새가족국 봉사자들의 경성스런 준비와 환영순서는 이제까지와 별 다른 점이 없었지만 40여명의 새가족들과 담임목사와의 격의 없는 대화와 진지하고 행복한 표정들을 읽을 수 있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교회의 비전과 꿈을 서로 나누면서 세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행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모두의 발걸음은 가볍고, 앞으로의 기대로 가득했다.

이날 참석한 두분의 소감을 들어본다.

■ 새가족 간증

“ 목사님의 CD설교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

할렐루야! 먼저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들겠지만 저에게도 원하지 않는 힘든 일이 선물처럼 찾아 왔었습니다. 그때에 영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였기에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 무렵 월서와 세라노에 있는 커피샵에서 매일 커피를 샀는데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두 분 목사님의 설교 시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본 교회 목사님 말씀 외에 다른 목사님 설교는 안 듣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목사님 설교 시디를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시디를 듣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시디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단인지 아닌지 성령님께서 구분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서 먼저 들은 것이 최혁 목사님 시디였습니다. 저는 설교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오고 막힌 세포가 열리고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말씀, 꿀솜이 보다 더 달고 오묘한 이 말씀, 그동안에 간절히 사모한 말씀의 갈증이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듣고 또 듣고 하루에 몇 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이 숙성된 말씀,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구나’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 또 감사,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최혁 목사님 시디를 남편, 친구,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보내주시는 목사님,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표현하고 정확하게 전하시는 목사님을 처음 봤다면 시디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에게 시디를 받아 들었던 분들마다 다 은혜 받고 그분들도 남편, 친구, 주위 분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 하루를 목사님 시디를 전하는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내가 죽으면 나를 장례해 주실 목사님이라고까지 남편,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목사님 계신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본 교회의 직분자로서 갈수가 없었습니다. 그

래서 시디 듣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면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혁 목사님이 벨리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 소리가 꿈이야 생이야 하고 정말이냐고 몇 번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하고 또 하고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저를 위해 최혁 목사님을 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 주셨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떡하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최혁 목사님이 계신 교회와 그리 멀지 않아 마음 같아서는 당장 최혁 목사님이 계신 주안에 교회로 가고 싶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이고 목사님 가족과는 가족처럼 20년이 넘게 지내고 있었고 또 목사님이 올해에 은퇴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밝힐 수는 없지만 생각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말씀 드리고 꿈에도 그리던 최혁 목사님이 계신 주안에교회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이사라 집사 |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은혜...





새생명의 기쁨, 주안에 행복이...



■ 문학과 삶

세월호 꽃다운 아가들의 노래여...

I am Free

Don't grieve for me, for now I'm free
I'm following the path God laid for me
I took His hand when I heard His call.
I turned my back and left it all.
I could not stay another day
To laugh, to love, to work, to play
Tasks left undone must stay that way
I've found that peace at the close of
the day
If my parting has left a void
Then fill it with remembered joy
A friendship shared, a laugh, a kiss
Ah yes, these things I too will miss
Be not burdened with times of sorrow
I wish you the sunshine of tomorrow
My life's been full, I savored much
Good friends, good times, a loved one's
touch
Perhaps my time seemed all too brief
Don't lengthen it now with undue grief
Lift up your heart and share with me

God wanted me now,
He set me free...

날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난 이제 자유하니까...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내 길을 따라가는거예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뒤로 놓은채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떠납니다.
단 하루 더 여기 머무를 수 없었냐구요?
한번 더 웃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장난칠 수 없었냐구요?
아니요! 내가 남겨놓고 온 모든 것들은 그냥 미완 성인채로 놓아두세요.
내가 떠나는 이 날, 아! 나는 평화를 숨쉬어요.
죄송합니다! 이 갑작스런 이별로 뺨 풀린 당신의 가슴은 채워주세요!
나와 지냈던 즐거운 기억들로요.
우리의 다정했던 우정,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깔깔웃음,
그리고 포근한 입맞춤이 있었잖아요.
아! 나 또한 얼마나 그 따뜻한 기억들이 그리울걸요...
그러니 제발, 제발 슬픔으로 당신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지 마세요.
못다한 내 사랑 바로 당신의 내일이 밝은 햇살로만 가득하면 좋겠어요.
비록 길지는 않았어도 내 인생은 참 맛있고 행복했어요.
좋은 친구들, 아름다운 시간들, 사랑하는 이들과

의 따스한 포옹들!
내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게 짧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제발 슬픔으로 오래 오래 끌고가지는 말아주세요.
오히려 당신의 아픈 가슴을 활짝 펼치고 저와 함께 저 푸른 창공으로 날아 올라 주실래요?
하나님이 지금 날 오라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날 자유케하셨거든요...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9-10)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을 가득채운 소망의 노란 리본을 하나님 아버지의 높이신 뜻에 올려드릴뿐입니다.
온 나라 온 민족의 통곡이 주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서미숙 기자

■ 입교 간증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갈지도 짧지도 않은 만큼 살아오면서 나름 굴곡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 교회 다니면서 '나는 반항기 사춘기 이런 것 없이 공부도 하고 신앙도 조금 있으니 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외모였던 것 같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았고 꾸미고 쇼핑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게으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하나 잡아서 그냥 먹고 살만큼 벌면서 나쁜 짓 안하고 살다가 천국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교회를 안가고 십계명을 어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에 포함되지만, 이 세상에서 자



김민재

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완전함을 찾으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인데 말입니다. 저는 계속 제 자신을 단장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만족하면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사나 시간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위해 써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멍니다. 가끔가다 제 얼굴 보면서 '눈과 눈 사이가 너무 먼가?' 이런 생각 등등 말할수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잠도 아직 너무 많이 자지만 제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를 또 변화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리토스채플 세례 · 입교식



밸리채플 세례 · 유아세례 · 입교식

■ 새가족 간증

내 삶의 터닝포인트

주안예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년여 전에 집사 랍이 건네준 최혁 목사님 설교 시디를 듣고 너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아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냈 습니다. 물론 다니는 교회는 잘 섬기면서,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원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어 섬기는 교회를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것을 긍정적이고 좋은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받아드리기로 하고 평소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주안예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안예교회에서 최혁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에게는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이 기쁨과 받은 은혜를 주님께 영광 돌리고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기로 마음먹으며 질서 속에서 순종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아멘.

| 이성근 집사 |

■ 김준억 장로 · 강헬렌 권사 은퇴감사예배



“절 없는 어린 시절, 예배당에 가던 일이 엇그제 같은 데 벌써...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지난 해 말로 시무장로를 은퇴한 김준억 장로와 강헬렌 권사의 은퇴 감사예배가 4월 19일 열렸다. 최혁 목사는 “교회법에 따라 70세 은퇴는 있지만 사역에서 은퇴는 없다”며 두 분의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함께 기뻐하며, 축복했다.

■ 구역모임 요리 팁

집에서 만드는 자장면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 후,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 무슨 메뉴로 정할까 고민이 된다. 누구보다 교우들을 자주 초대하는 박창신 집사님, 캐이더링이 편하지만 늘 손수 만든 음식을 내놓는 집사님의 실전 요리 레시피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 어린 시절 즐기던 자장면을 생각하며 집에서 만들수 있는 recipe 를 소개합니다.

1. 재료 (4인분 기준)

양배추 1통, 감자1/4개, 양파 · 당근 1/2개씩, 돼지고기(기름기 있는 부위) 50g, 춘장 · 식용유 1 1/2컵씩, 육수 4컵, 녹말물 4큰술, 설탕 · 굴소스 1큰술씩, 생면 200g

2. 만드는 법

- ① 먼저 춘장과 기름을 1:1 비율로 하여 함께 팬에 넣고 잘 섞이도록 국자로 저어주면서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도록 약한 불에서 10~15분 정도 볶아준다.
- ② 볶은 춘장은 체에 받쳐서 30분 정도 내려 기름

을 뺀다.

- ③ 팬을 센불에 달군 후 기름을 넣고 돼지고기 썬 것을 볶다가 양파를 넣고 중간불에서 다시 볶는다.
- ④ 감자는 미리 데쳐 놓는다. 감자와 양배추, 당근을 넣고 볶다가 야채가 익으면 미리 준비해 둔 볶은 춘장과 육수를 넣는다.
- ⑤ 굴소스와 약간의 설탕을 섞은 후 녹말물(녹말 1큰술에 물 1 1/2큰술 기준) 농도를 맞추면 소스는 완성된다.
- ⑥ 생면을 따로 끓는 물에 삶아 찬물에 충분히 헹군 뒤 자장소스, 채진 오이, 당근 등의 야채를 얹어 감자와 곁들여 상에 올린다.



박창신 기자

부 활 절 삼 행 시

정소연 집사

부: 부족한 저를 위하여
 활: 활활 타오르는 구원의 사명으로 이 명예 오신 예수님

절: 절 그렇게 사랑하실 줄은...! 할렐루야!

고지연 집사

부: 부지런한 주안에 성도님들
 활: 활활 타오르는 주님 향한 사랑 가지고
 절: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함시다.

이경하 권사

부: 부활을 믿으십니까?
 활: 활짝 가슴을 펴시고 그 믿음을 외치십시오

절: 절대로 낙심 말고 부활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

김일현 (C Youth)

부: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도

활: 활발하게 사역하신 은혜의 주님

절: 절 구원해 주신 크신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김숙희 집사

부: 부르시옵소서 나아가리다.

활: 활기치게 비상하는 독수리 심장 되어
 절: 절절한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오리.

신연정 집사

부: 부활의 예수님 믿으세요?
 활: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절: 절실한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기쁘게 만듭니다.

오윤선 집사

부: 부족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활: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절: 절망의 늪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한 분, 오직 예수

박진영 집사

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활: 활개치던 시탄들아

절: 절루 기뻐! ^_^;

남기만 집사

부: 부우소서
 활: 활 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

절: 절실한 기도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김종성 집사

부: 부안하네, 부안하네, 부안하네
 활: 활활 타오르는 불 화로 앞에서..

절: 절절히 화개하고 돌아오네 용서하시는 주님 앞으로

김연희 집사

부: 부귀와 존귀, 세상이 주는 것은
 활: 활활 태워 버리고

절: 절대 믿고 가세 우리 주님만을

■ 교사의 글

좁은 길 천국문,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

천국 문을 열지마다
성화의 길을 걷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깨는 자
그들은 천국 시민이나라

믿음은 호흡이니
깨어 천국을 호흡하라
호흡이 멈추은
죽음에 이르는 당연한 이치로다
말씀을 살피어 천국문에 이르지마다

하나님아버지를 향해 호도하라
호도하는 길은 그 마음을 살피어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니
깨어 참으로 호도하라
자녀를 사랑하듯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터뜨리라도 알지마다

그러나
문을 허락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니
포장된 육신의 몸짓과 거짓 혀가 아닌
마음 속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지어다

나는 포도병쿨이 둘러싼 좁은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천국문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갔다. 그동안 기도로 하나님께 편지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을 향해 쓴 LOVE LETTER를 안고 그 길을 가는 것이었다. 그저 포도병쿨 안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었더니 어느덧 천국문이었다. 좁은 길을 걷는 동안 친구가 장난도 치고, 집에 두고온 장난감 생각도 나고, 맛있는 음식이 그림기도 하고... 그래서 발을 헛딛을 뻔 했던 게 사실이다. 너무 좁아 균형을 잡기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도달한 천국문. 아뵤사,,,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직접 드리려고 했는데 편지를 천국문에 있는 우편함에 넣으란다. 당당했던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온 길인데... 안열어 주면 어떻게 하지? 그동안 했던 내 기도의 편지는 천국으로 도착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갑자기 두려움에 몸을 가눌 수 없어 그 마지막 잘나에 발을 헛딛을 뻔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길 양 옆으로 말씀의 보호벽을 쌓아주시는 것이었다. 예수님! 예수님! 외쳐 부르며 붙잡으려 했지만 어느덧 무소부재의 모습이셨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게 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편함에 '성령님께서 듣는 진심'으로 썼던 편지를 넣고 노크를 했다.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니 참 괜찮아...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그



크시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놀라우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두려워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LOVE LETTER를 편지함에 넣은 것이었다. 그러자... 'Welcome Home!' 하며 천국문이 열리고 문지기가 나를 끌어안았다. 우와! 갑자기 내 모습이 빛과... 아니 넘치는 빛이 되고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새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부로 맡기신 아이들을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혈연만이 부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랑합니다. 세상의 헛갈리는 방식 말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혹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성도가 미래를 꿈꿉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임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참 평안임니까. 이번 전시는 아이들의 영혼육에 하나님의 참 사랑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기억하게 하려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 Cate Song |

'DISINTOXICATION: FACING ON GOD'이라는 Course title로 이루어진 주안교회 교육부 EIKON ART CLASS에서는 다양한 미술 기법을 이용해 성경 속 주요 사건들을 형상화하여 아이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과 동행 하는 법을 기록하며 안내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이름 다른 선물들을 발견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학습하는 것이다. 사진은 '좁은 길과 '향유옥합' 프로젝트.

주안에 교육 비즈니스 소개

BDO | commercial wholesale lender
"The Bridge to Capital Markets"

Stella Son
Director

Main Office 4322 Wilshire Blvd. #301 Los Angeles, CA 90010	Downtown Office 1016 Towne Ave. #209-210 Los Angeles, CA 90021
---	---

Cell: 213.810.1230 Tel: 323.761.7505
Fax: 323.761.7507 stella.son@bdoci.com
www.bdoci.com Commercial Finance Lender License #6033429

NEWSTAR Realty & Inv.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ity.com

Cindy Lee | Vice President
C) 818.621.8949
[O] 818.881.2300 [F] 818.495.2500
[E] cindy.lee@newstarreality.com
cindylee@icloud.com
11259 Charworth St. Granada Hills, CA 91344
BREP: 01303681
MLSR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 • 정원 공사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OVERED CALIFORNIA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Sang B. Kwon 권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생명보험 은퇴연금 주택보험
건강보험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 유치등부

십자가 공부
진지한 동심



Daniel Ahn
Counselor
Cerritos & Norwalk

12325 E. Rosecrans Ave. Tel: 562.868.0788
Norwalk, CA 90650 Cell: 213.507.1313
daniel@HankookMortuary.com Fax: 562.868.2808



Kyung (Kenny) Kim
Financial Services Representative
CA Insurance Lic. # 0C41666
Registered Representative
Investment Advisor
Representative

MetLife of Southern California
150 S. Los Robles Ave., Suite 750
Pasadena, CA 91101

Direct (626) 755-2181
Cell (818) 307-4894
Fax (626) 755-2169
kkim5@metlife.com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 (MILIC), New York, NY 10168.
Securities and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offered by MetLife Securities, Inc. (MSI FINRA/SIPC),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MILIC and MSI are MetLife Inc. companies.

인터넷 비즈니스



월 2500달러 이상
올릴 수 있는 기회

Tel: (213) 268-8711
Tel: (818) 943-9211

~ 성도님들의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

'주안에'는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성도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명함 크기의 광고 문안을 제작하셔서 문서국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국에서 광고 디자인을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익은 문서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주안에 교육
비즈니스 소개



#5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 Jesus Shed His Blood for Me



여명의 시간, 눈을 감고 잠잠히 묵상에 젖어 있자니 귓전에 애잔한 찬양이 흐릅니다. 지난 고난주간 금요일 배 때 성찬식에서 I전도사님이

부르신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 갑자기 가슴이 뭉클 해지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초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 집니다. 그리고 찢어지는 아픔이 전해 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가슴 저미는 주님의 사랑에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찬송가를 쓴 작시자는 미국태생의 FJ 크로스비(Funny Jane Crosby 1820-1915) 여사입니다. 그녀는 태어난지 6주만에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두 눈을 잃어버린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여사는 자신의 불행을 비판하지 않고 신앙으로 자신의 불행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잘 들여다 볼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세계를 신앙의 눈으로 아름답게 바라보며 주옥같은 찬양 시를 8,000여

편이나 썼습니다. 그녀의 작품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찬송 역시 우리 죄값을 치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몸을 입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구원을 줄 자도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대속을 치르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절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4절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3절과 4절에서는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 뿐이라고 증거하고 있

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비누로 손을 씻고 목욕탕에서 온 몸을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 하십니다.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이 우리를 죄와 같이 붉은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뿐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속죄양(요1:9)으로, 우리의 친구(요 15:13)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미국 케네디컷 주의 ‘프레스톤(Preston)’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믿게되어 노르윅(Norwick)의 침례교인이 된 윌리엄 하워드 돈(W.H. Doane 1832-1915)입니다. 데니슨(Denison)대학에서 명예음악박사 학위도 받은 그는 큰 사업을 하면서도 2,200여곡이 넘는 찬송을 작곡하였는데, 그의 대부분 찬송곡은 작사가 ‘크로스비’의 시에 붙인 곡이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1915년 같은 해에 나란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에서는 더이상 장님이 아닌 “크로스비”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돈”과 함께 더 많은 주옥같은 찬송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겠지요... 우리의 아름다운 예수님께...



서세건 기자

“주안에” 2014년 5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김경일, 김숙희, 조이 메기, 새라 리, 박창진, 서미숙, 서세건, 이재호, 이지혜, 조용대, 채은영 (기자) 김다슬, 안동윤, 브라이언 조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8:00, 10:00
밸리채플 / 오전 10:00, 11: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다운니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다운니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다운니채플 10629 N. Lakewood Blvd., Downey, CA 90241

비전채플 8531 E. Florence Ave. Suite #100, Downey, CA 90241

세리토스채플 11751 Alondra Blvd., Norwalk, CA 90650